

<유효공선행록>이 보이는 유연 형상화의 두 양상

최 윤 희*

차 례

- | | |
|--|-----------------------------|
| I. 머리말 | III. 사건과 행위를 통한 실제적 형상화 : 장 |
| II. 권위적 서술자 발화에 의한 의도적 형상화: 효우한 인물로서의 유연 | 자콤폴렉스 소유자로서의 유연 |
| | IV. 형상화의 간극과 의미 |
| | V. 맺는말 |

I. 머리말

<유효공선행록>은 많은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아온 작품이다.¹⁾ 그간의 <유효공선행록>에서 유연에 대한 논의는 유연의 행위를 규명하려는 연구와 유연이 보이는 행위의 기능과 의미를 밝히고자한 연구로 나뉘볼 수 있다. 먼저, 주인공인 유연을 효우한 인물로 규정한 논의들이다. 작품에서 발생한 부자갈등과 형제갈등이 유연의 효우로서 해결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유연을 유교 이념의 절대적 수행자²⁾ 또는 이상적으로 이념화된 효우의 실행자라³⁾ 본 논의가 그것이

* 고려대학교 강사

1) <유효공선행록>에 대한 연구는 김기동이 작품의 서지적 고찰, 경계, 주제, 개평을 가하면서 시작되었다. (『한국고전소설연구』, 교학사, 1983, 648-653쪽.)

다. 둘째, 유연이 보이는 효우의 기능과 의미에 대한 연구로는 효우라는 절대적 이념이 가문 내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지만 대외적으로는 가문의 명예 회복과 유지 번영을 위해 기능⁴⁾했다고 파악한 논의와 유연이 효우는 명분론적 이념이라고 평가한 논의가 있었다.⁵⁾ 후자의 논의는 유연이 가부장제적에서 종속 관계에 있는 부인과 아들과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명분론적 이념인 효우가 비현실적이며 관념적인 특성을 지닌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논의는 <유효공선행록>에서 유연이 보이는 효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유효공선행록>은 효우의 문제보다는 가부장의 권위와 위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작품⁶⁾이라 평가한 논의가 그것이고, 유연의 행위를 극단적 효우의 실천으로 온통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라 보면서 유연을 군자로, 이에 반하는 유흥을 재자로 파악하여 군자와 재자와의 다툼이라는 맥락으로써 <유효공선행록>의 소설사적 의미를 읽어 내려간 연구가 있었다.⁷⁾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유연을 비정형적인 인물로 파악하고 그가 보이는 효우 또한 상황에 따른 유동적인 모습을 띤다고 본 논의도 있었다.⁸⁾

그간의 논의를 살펴보면, 효우의 성격이 이상적이든, 관념적이든, 현실적이지 않든, 실천적이지 않든, 논자마다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유연과 효우를 관련지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유연이 보이는 행위의 의미를 논자마다 각각 산림, 사림, 훈벌 의식에서 비롯된 작가 의식의 표출이라 하여 다르게 파악하고 있으나, 유연의 행위가 유씨 가문의 유지·번영·창달에의 기능을 갖추

2) 임치균, 「<유효공선행록> 연구」, 『관악어문연구』 14, 서울대 국문과, 1989.

3) 박일용, 「<유효공선행록>의 형상화 방식과 작가 의식 재론」, 『관악어문연구』 제 20집, 1995.

4) 이승복,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효우의 의미와 작가의식」, 『선청어문』 19, 서울사대국교과, 1991.

5) 송성욱, 「고전소설에 나타난 부의 양상과 그 세계관 -<유효공 선행록> <뉴씨삼대록>을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15,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90.

6) 양혜란,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전통적 가족윤리의 제문제」, 『고소설연구』 4, 한국고소설학회, 1997.

7) 전성운,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君子와 才子의 다툼과 그 의미」, 『조선 후기 장편국문소설의 조망』, 보고사, 2002.

8) 김성철, 「<유효공선행록>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2002.

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관된 견해를 보인다.

필자는 <유효공선행록>의 유연이 전일(全一)하게 효우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견해에 동의한다. 그러함에도 유연이란 인물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본고는 이같은 소박한 회의에서 비롯한다. 우선 <유효공선행록>은 여타의 장편소설 작품과 다르게 서술자의 목소리가 강하게 노출되어 있다. 서술자의 발화는 작품을 읽는 미감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유연이란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자의 발화의 향방과 그 형상화의 실체에 대해 고찰하겠다. 서술자에 의해 기술되는 유연과 유연이란 인물의 주변적 상황과 그 상황에 대응했던 유연의 행동 양식을 통해 작품 내에 형상화된 유연의 실체를 구명할 수 있을 것이다.

II. 권위적 서술자 발화에 의한 의도적 형상화 : 효우한 인물로서의 유연

고전소설의 작품에서 서술자의 발화는 작품의 서술 사이사이에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다. 사건이나 인물과 관련한 서술자의 생각과 감정을 작품 내에서 빈번하게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서술자의 발화는 작가의 의식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한편 독자에게는 인물 혹은 사건에 대한 자유로운 평가와 입체적인 판단을 차단하게 하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서술자 발화의 빈도수와 발화 정도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편이다. 대개의 경우 서술자 발화가 지니는 양가적 특징을 변별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술자의 발화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서술자의 발화가 일정한 경향을 띠고 있다면, 이를 무심히 넘겨서는 안 된다. 서술자 발화에서 나타난 의도성을 읽어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유효공선행록>의 서술자 발화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작품만큼 서술자의 발화가 과다하게 노출된 소설이 드물기 때문이다. 특히 인물들에 대한 평가에서 그 특징이 뚜렷이 나타난다.

<유효공선행록>의 유연과 유정경, 유흥에 대한 서술자의 발화를 살펴보도록 하자.

- ㉠ 뉴시량이 겸허여 인물의 식험혀 일편되어 잔잉흔 일이라도 능히 홀 위인이라(15권 5쪽)⁹⁾
- ㉡ 상서의 병신이 두려오미 잇고 더 무식흔 엄구의 노기 해아림이 업술 줄 알고 일시 중칙호물 보니 그 환을 즈기 아닌즉 프지 못홀지라(15 권 122쪽)
- ㉢ 데통적고 편벽된 아비를 쇼가지 못허며 심공의 드르신 턴지 알으시리오.(15권 335쪽)
- ㉣ 뉴공은 본디 중무소쥬흔지라 상서의 말을 듯고 문득 의려허여 첫 뜻을 두로혀니(16권 46쪽)¹⁰⁾

위의 인용문은 유연의 아버지 유정경에 대한 서술자의 발화들이다. ㉠는 대한 유정경의 인물됨에 대한 기술이고, ㉡는 정소저가 유연에게 매질을 가하는 시구(媳舅) 유정경을 본 장면에 덧붙여 발화된 서술자의 말이다. ㉢의 경우는 유흥이 유정경을 속이는 부분으로, 체통이 적고 편벽된 아비이므로 유흥에게 속는 일은 당연하다는 어조이다. ㉠㉡㉢ 모두 유정경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는 좀더 극명하게 유정경에 대한 서술자의 부정적 인식을 나타낸다. 유정경을 쯤대 없이 이리저리 생각이 쏠리는 중무소주(中無所主)한 위인이라 말한다. 이같이 유정경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은 작품 전반에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데, 다음에서도 찾을 수 있다.

- ㉤ 경부인이 문득 화괴 변허여 양슈로 싯홀 집허 썩러지는 눈물이 중횡허여 비긋트니 공이 취홍이 극허야 도로혀 성효의 즈부를 상도허게허고 스스로 싯흔 일장을 우니 노망허미 이럿듯홀지라(16권 276~277쪽)

위의 ㉤ 인용문은 <유효공선행록> 후반부 내용이다. 유연의 아들 유우성이 한림편수로 제수받고 돌아오자, 유정경은 손자의 출세를 함께 보지 못한 죽은 경부인을 생각하며 머느리인 정부인과 유우성에게 경부인의 이목(耳目)을 아느

9) 12권 12책의 <유효공선행록>은 필사본 고소설전집 15권과 16권에 영인되어 있다(아세아문화사, 1980). 이후 인용문은 영인된 책의 권수와 쪽수만 밝힌다.
 10) 상세 빅경 계후허른 전두를 기리 해아리미라 뉴공은 곡절을 모르고 중무소쥬흔 사름이라 허락기를 용이히 허야 우성을 바리니 엇지 앓갑지 아니리오(16권 139쪽)

나는 물음에 이어지는 기술이다. ㉔ 인용문의 전후 정황을 살펴보면, 유정경뿐만 아니라 유연과 정부인도 경부인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린다. 그런데 서술자는 유정경에 대해서만 분위기 파악하지 못하고 유연 부부의 마음을 상하게 한 노망난 사람이라 평하고 있다.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행위를 보여도 유정경에 대해서만큼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연의 동생 유흥에 대한 서술자의 발화도 유정경 못지않게 부정적이다.

- ㉗ 온가지로 헤아리미 도로혀 노정을 위혀여 골육동기를 모함하니 이 경히 황금 슈빅양이 뉴시 가문을 어즈러이고 부즈 형데 불화호는 근본이 되어 맞춘니 인륜디변을 이르혀니 슬프다 스람이 욕심을 삼가지 아닐 것가(15권 10쪽)
- ㉘ 흥이 엇지 그 효우를 아지 못호리오마는 그 어질물 더욱 아쳐호고 그 스랑호를 뒤워하니 만일 흥의 므음을 도로혀려호는 즉 연이 맛당이 효위 업고 불인호 후 편홀 거시로디 공즈의 집심 고치기는 흥의 기과천선도곤 어려온지라 텃디 고로지 아니미 이러트 심호리오(15권 57~58쪽)
- ㉙ 엇디 연의 너모 어질기와 흥의 잔학호미 이리 심호리오(15권 88쪽)

위의 인용문 ㉗는 유흥이 노정의 뇌물을 받고 아버지 유정경의 판결을 호리고 유연을 모함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서술자 평이며, ㉘는 유연이 유흥에게 과거의 허물을 잊고 사랑하며 잘 지내자는 당부를 했는데, 유연의 말을 유흥이 결코 듣지 않을 것이라는 서술자의 언술이다. 유연의 인의와 사랑을 미워한다고 함으로써, 유흥을 도리(道理)를 다하지 못하는 인물로서 단언하고 있다. 특히 ㉙는 유연과 비교하여 유흥을 잔학한 인물로서 평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효공선행록>의 서술자는 유흥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㉚ 이적의 흥이 간스호 피로 형을 사디의 너코 안호로 후궁을 섬겨 궁모를 폐호고 국스를 위티케호나 사롬이론지 너의 현격호여 죠당의 ○디의 나으가미 뵙뵙호미 추상갓고 봉우제비를 디호면 현하갓튼 구변과 창과갓튼 문장이 사롬으로 호여금 정신을 일케호는지라(15권 336쪽)

또한 서술자는 인용문 ㉚에서 볼 수 있듯이 유흥을 간사한 피로 형을 사지에

넣고 안으로 후궁을 섬겨 국모를 폐하고 국사를 위태롭게 하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보면 유흥의 언변과 문재는 다른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할 정도로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술자는 유흥의 이같은 재주를 유연을 궁지로 몰고 국모를 폐하게 만든 사건과 결부시킴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유흥의 재주를 객쩍은 재주로 평가하게끔 만든다. 유흥의 재능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서술자의 발화를 통해 비틀어 놓는 것은 유흥에 대한 서술자의 부정적 시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같은 유흥에 대한 서술자의 부정적 발화는 유연을 도드라지게 하는데 일조한다.¹²⁾

유정경과 유흥에 대한 서술자의 부정적인 언술과 비견하여 유연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다.

- ㉠ 서로 불화하여 혼나흔(유연 : 필자주) 효우관인하고 혼나흔(유흥 : 필자주) 간교암협하기를 주흐니 즈연 외친니소흐미 되니 이 또한 엇지 텃의 아니리오(15권 5~6쪽)
- ㉡ 공지 심히 두리고 슬허 몸일 츠칙하고 가지록 효우흐를 힘쓰디라 유아 야야를 감동코즈 흐나턴쉬 밧서 정흐였고 뉴게 크게 어즈러오라 흐는지라 엇지 능히 어진 스투이 인륜의 온전흐를 어드리오(15권 15쪽)
- ㉢ 일공즈는 더욱 각별 흐날이 대순 이후 혼낫 효즈를 내신지라 엇디 범인의게 비기리오만은 스투이론지 영모흐미 안흐로 깊플 썩툼이오 밧그로 궁과흐미 업서 야야 안전의 더욱 화괴자약하고(15권 37쪽)
- ㉣ 가이 어엿부다 외로운 효심이 촉촉하여 강상 죄명을 즈당하고 아버지를 가리오미 엇디 양광하기를 앓기리오(15권 90쪽)
- ㉤ 뉴싱의 언단이 온화하고 침중하여 일호도 지어하며 무박흔 거동이 업서 너의 혼갈가치 순박하고 텃연하여 진실노 군즈의 도리 극진흔지라 흐물며 그 풍신 얼굴이 더욱 보암죽하여 이런 일의 경성경국홀 밧출가져 인의 네지를 품은 충효 군지라(15권 250~251쪽)

11) 전성운은 유흥의 이와 같은 면모에 대하여 재자적 형상을 지니고 있다고 논한 바 있다. 유흥이 언변과 문재가 군자적 면모와 경쟁적이라 평가한 논의는 합당하다(전성운, 앞의 논문 참조).

12) 유정경을 위해 대연을 베풀었을 때, 강형수가 유흥을 보고 ‘만닐 목은 군즈를 저를 의논흔 즉 녀의 쌀을 먹음고 비예 갈홀 너허 언변이 교테하고 직혹 수발하여 진짓 채경 왕완의 무리로 간주하면서 동시에 ‘엇지 즈순의 성격 현형이 크고 너른 군즈의 비기지 아니리오’(16권 420쪽 참조)라며 유연과 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㉗는 <유효공선행록>의 첫머리 부분으로 유연과 유흥에 대한 인물 정보에 해당한다. 그런데 서술자는 독자가 인물들에 대해 판단할 여지를 주지 않고, 유연을 효우관인한 인물로 단정하고 있다. ㉘는 유정경이 유흥의 간언을 듣고 유연을 폄박하는 부분에 기술된 내용이다. 서술자는 유정경의 폄박하는에도 유연은 반항하지 않고 인륜을 온전히 하고자 노력하는 인물이라고 평하고 있다. 이외에도 유연에 대한 온정적이며 긍정적인 시각을 지닌 서술자의 발화는 반복되고 있는데, 유연을 대순에 비교하기에 이른다. 서술자는 유연을 하늘이 각별히 내린 ‘대순 이후 혼낫 효조’로 범인에 비길 수 없는 사람이며, 무식한 천인이라도 감동하게 되는 효우한 인물이라 말한다. 서술자의 발화는 ㉙에서 극치에 이른다. 유연이 거짓 미친 체 하여 폐장당하는 부분으로, 서술자는 북받치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유연의 효심에 대해 감탄하고 있다.

서술자는 반복적으로 유연을 “효우한 인물”임을 강조한다. 서술자의 언술은 독자들의 판단을 차단시키기 충분하다. 다른 인물들에 비해 유연을 유독 편애함으로써, 그를 효우한 인물로 전제하고 단언한다. 그러므로 유연이라는 인물에 대해 판별하기 이전에 이미 독자들에게 유연은 효우한 인물로 각인된다.

- ㉗ 박상규 발연작식하고 고성대미 왈 니 즈순으로써 인효군지라 흐엿더니 오늘날 보견디 간악하미 즈현의 우히리로다(16권 40~41쪽)
- ㉘ 상시 절노빠 인인군지라 흐더니 그 힝스를 보니 흥의게 더은지라(16권 50쪽)
- ㉙ 뉴상셔의 힝스반고하미 이럿듯하여 성식을 요동치 아녀 십삼도당의 의논을 막고 십년 침폐하여 세상의 브리엿든 부친으로 하여금 영상을 일위 일세의 칭찬하는 사름이 되게 하며 즈기 스스로 시비 업셔 편흔 곳의 나으가니 그옥흔 효의를 신명이 감동홀디언정 방인이 아지 못홀지라 엿지 천고의 현인 군지 아니리요(16권 237~238쪽)

위의 ㉗㉘㉙ 인용문은 모두 정소저의 거처를 알고 있는 유연이 정소저의 생사 여부를 알지 못하는 정관의 집에 일부러 정소저의 소식을 알려주지 않는 일련의 사건과 관련된 부분들로서 ㉗㉘는 등장인물들의 발화이고 ㉙는 서술자의 발화이다. ㉗는 정관의 부탁을 받고 정관과 유연의 화해를 중재하러 온 박상규의 말이다. 박상규는 사위인 유연에게 정소저의 행방에 대해 도움을 청하는 정관의 간청을 모른척하는 유연에 대해 간악하다며 질타하고 있다. ㉘는 정소저

남매가 만났을 때, 정공자가 유연을 두고 한 말이다. ㉗와 ㉘에 의하면 유연은 음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㉗와 ㉘의 등장인물의 발화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㉙에서 서술자는 유연의 행위가 유정경을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하고, 이를 신명이 감동할 효의이며 천고의 현인군자라고 말한다. 유연의 행위에 대한 등장 인물의 언술인 ㉗㉘와 서술자의 발화인 ㉙가 서로 불일치하고 있음을 목도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유효공선행록>의 서술자의 발화는 빈번하게 나타난다. <유효공선행록>에서 서술자는 유정경과 유흥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부적절한 인물형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에 이들과 대조 인물로서 유연에 대해서는 군자, 효우, 현인으로서 평가한다. 부정적 인물과 긍정적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는 갈등 사건의 추이에 따르지 않는다. 갈등 발생 이전부터 고정되어 있다. 특히 유연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는 효우한 인물로서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효우한 인물로 인정하기에 유보할 수 있는 상황에서조차 효우한 인물로 단정함으로써 그 여지를 소거시켜 놓는다. 독자는 서술자의 언술에 견인될 수밖에 없다. 결국 유연이 효우한 인물로 보이게 된 이유는 ‘효우하다’라는 서술자의 반복되는 강조와 유정경과 유흥에 비견하여 유연에 대한 온정적인 시각을 가진 서술자의 언술 때문이다. 따라서 <유효공선행록>의 서술자는 권위적이며, 권위적인 언술에 의해 유연이라는 인물은 효우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고 하겠다.

Ⅲ. 사건과 행위를 통한 실제적 형상화 : 장자콤플렉스 소유자로서의 유연

그러나 권위적인 서술자의 언술에도 불구하고 유연은 효우한 인물인가 회의하게 한다. 유연이 보이는 행위의 진상 여부를 차치(且置)하고 유연에 대해 연민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유연이 장자콤플렉스¹³⁾를 지닌 인물

13) 유연이 장자 콤플렉스를 지니고 있다면, 유흥은 장자에 대한 형제 적의 감정의 소유자로 간주할 수 있겠다. 그러나 <유효공선행록>은 유연이 중심인물이므로 본고에서는 유흥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다.

로 형상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에게 둘러싸인 장남은 모든 면에서 '장남 노릇을 잘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 또는 '장남 노릇을 잘 못한다'는 콤플렉스에 빠져 있다. 장남에게는 가족을 보호하고 가문을 잘 이끌어야 한다는 심리적 동인이 잠재해 있다. 또한 동생에게는 너그럽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같은 장남의 생각은 곧 자신보다는 가족 또는 가문 기대를 우선시 한다. <유효공선행록>에서 유연은 장자로서 가권을 수호하고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강박적 의식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유연의 주변적 상황을 살펴보자. 유연의 집안은 명나라 개국공신의 후예로 국가의 중임을 맡아오는 명문가이다.¹⁴⁾ 유정경은 강형수의 아내에 대한 강간 미수죄로 소송된 노정에 대한 잘못된 판결을 하게 되어 형부상서 남공과 형부 우시랑 위공에게 추궁당하지만 오히려 천자로부터 예부상서로 관직을 복돋음을 받을 만큼¹⁵⁾ 천자의 준총(駿聰)을 받고 있다. 그러나 유연이 목도(目睹)한 현실은 유가 가문 구성원들의 도덕적 순결성의 결핍의 문제였다.

㉔ 이 책의 류밀부스 당판의 언논이 시절의 최중훈 배라 십삼도 어시 그 집의 다 모다 정히 노정의 죄목을 희비히 배퍼 정형호를 주히고 좃초 뉴공의 금을 밧고 더욱을 프러마려 스류를 경시하고 국법을 천호호 죄로 귀향 보니를 청호여 만언소를 지어 십삼인이 년명호고 정히 의 논홀 츠의~(15권 20쪽)

위의 인용문을 보면 유흥이 받는 뇌물로 인해 유정경은 법집행에 있어 공정성을 잃어버리고, 공직 윤리를 지키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유정경이 저지른 공직 윤리의 해이는 쉽게 바로 잡을 수 있는 문제이다. 유연은 유정경

14) 더명 성화년 간의 성의빅 유정경은 세디 명문인 기국공신 뉴빅운의 후예오 국 부당사 뉴경의 손이라. 일죽 넘신히여 벼술이 병부시랑의 니르러는 텃지 특별 이 준총호사 성의빅을 더오시고 남방 삼천호를 먹게 호사 조선 벼술을 승습호 시니 영귀호미 당세의 웃듬이오(15권 3쪽)
15) 설파의 위시랑으로 더부러 서로 보고 형이히 너기니 뉴공이 무안호여 두어 말 노 변식호니 이인이 정싱(식)고 니러니 뉴공이 상호호여 동관의 천디호를 바 다 혼 마을의 든니지 못호리로스이다 혼디 상이 슈초로 위로호시고 정위를 가 라 네부상서를 도도시니(15권 19~20쪽)

에게 간언함으로써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 십삼도어사의 연명으로 유정경이 귀향가게 되자, 유연은 선조인 문성공의 수적을 찾아오는 일을 핑계 삼아 유정경의 탄핵과 유배를 장악하고 있는 정관을 찾아 간다. 그런데 유정경이 유연에게 정관을 찾아가라는 명령이 있었다는 기술을 찾아 볼 수 없다. 유연의 자의적 행위였음을 추측케 한다. 선조의 수적을 찾아오는 일을 유정경의 허락 없이 자단할 수 있는 문제였던가. 유연은 부친을 귀향가게 하는 만언소의 작성을 저지하기 위해 정관을 찾았던 것은 아니었을까.¹⁶⁾ 장자로서 아버지의 유배를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유연에게 내재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유연의 방문을 계기로 십삼도어사의 만언소는 없었던 일로 원만히 해결되고 정관의 사위가 된다.

그러나 이보다 심각하게 유연을 움매고 있는 문제는 가문 구성원의 비도덕적·패륜적 행위에 대한 문제였다.

㉓ 오늘 니 집의 큰 일이 잇시니 녀워는 드러솔피라 중인이 말을 그치고 연고를 무른디 공이 왓 이 일이 다른 일이 아니라 돈으 연이 으가 종스로 선조 문성공 계스를 밧들스름이어늘 불헿혀 노부를 슬히코즈혀여 서모를 음중하며 가슈를 꺾박고즈혀다가 세루흐니 진실로 불표부테하고 음난무도흐미 상시 양광이라도 더오지 못홀지라(15권 91쪽)

㉔ 복이 네부상서 유정경은 본디 부지 방탕음란무도하니 일즉 그 어미를 돌노 쳐 머리 찌여지니 파상풍혀 죽고 이민화란 슈어스로 가서 그 아비 창첩을 드래 총첩을 숨아 통간하고 일이 누설홀가 두래 짐독하여 죽이고 상상의 민가 녀즈를 아스미 혼두번이 아니라 스통이 금슈로 지목호되 조상여경으로 벼술이 후빅의 이르고 위통지의 잇시니 임의 작녹을 도격하미 극흔지라 관지 날오더 네의 엄치 시위스위라 스위 브장이면 국년 멸망이라 하니 폐히 만일 이긋치 상풍피속호는 무리를 버히지 아니사 그 풍속이 세상의 모들면 그히로오미 엇지 이란스설의 더오지 아니며 성디의 빗출 더러이지 아니리잇가(15권 200~211쪽)

16) 유연이 문성공의 수적을 찾으러 정관의 집을 방문하는 사건은 <유효공선행록>의 사건 전개 상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다. 우연적인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만언소의 저지 목적을 숨겨 가지고 유정경의 명령없이 정관을 방문했기 때문에 돌아와서 유정경에게 결과를 보고하지도 않은 것이다.

인용문 ㉔는 유정경이 동당친척을 모아 부친 살해 용의, 서모 음증, 제수 희롱을 언급하며 유연을 폐장하겠다고 말하는 부분이다. ㉕는 정관이 작성한 유정경 탄핵 상소로, 유정경이 모친 살해, 아버지의 창첩과의 통간 및 살해, 부녀자 겁탈을 일삼았다는 내용이다. ㉔와 ㉕사이의 유사성에 주목된다.

부모 살인죄와 음증은 윤리를 파괴하는 대죄이다.¹⁷⁾ 음증했다는 소문이 세인(世人)들의 입에 오르내린다면, 그 소문의 당사자는 물론이요, 가문의 명예가 실추됨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㉕에서 보이는 유정경에 대한 소문은 익히 원자(喧藉)되던 일로, 정관은 전부터 유가에 관한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¹⁸⁾ 따라서 정관의 상소는 유정경의 도덕적 순결성의 결핍에 대한 문제를 문서화하는 기회였을 뿐이다.

참시 ㉖ 인용문에 나타난 유정경의 말을 빌자면, 살해 및 음증은 음란무도자의 행위이며 가문의 대화(大禍)로 단정한다. 친모 살해와 부친 창첩과의 통간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근거없는 것이라면, 유정경 자신은 물론 유씨 가문의 일원들은 유정경의 살해와 음증이 모해임을 밝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유정경은 자신이 음증과 관련하여 상소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며 상소 작성을 주도했던 정관에게조차 일언반구를 열지 않는다.¹⁹⁾

그러나 유연에게 가문 구성원들의 도덕적 순결성의 결핍은 ‘문호의 불행이며 인눈이 손란하여 크게 풍화의 관계하’는 일로 여겨졌으며 가문의 위신과 존립

17) 음증에 관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살펴보다라도, 숙종 13년에 지아비를 시해(弑害)한 죄인 계승(桂承)과 숙모(叔母)를 음증(淫蒸)한 죄인 김영갑(金榮甲)을 목을 베었다는 기사가 있으며, 영조 10년에 고(故) 병사 김수(金洙)의 사촌 서제[同堂庶弟]인 현감(縣監) 김협(金峽)이 김수의 첩 홍도(紅桃)를 간음하였는데, 일이 발각되매 대시(待時)하여 교형(絞刑)에 처하게 하였다는 기사가 있다. 또한 정조년간에는 음간에 대한 엄격한 처벌법이 제정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8) 정소저가 정관의 상소를 우연히 보고 저지하면서 전부터 익히 알던 사실을 상소하느냐는 내용이 존재한다.

19) 유정경이 이 일로 설분(雪憤)하는 상소를 올린다거나 정관을 찾아가거나 혹은 정가를 원수로 여긴다거나 하는 일은 없다. <유효공선행록> 全卷을 통틀어 단지 홍으로부터 정관 상소 내용을 들었을 때, ‘홍이 집의 도라와 일노빠 부친기 뵈니 공이 대로하여 명가를 절치이분홀 시(15권 339쪽)라는 서술 외에는 찾을 수 없다.

의 문제까지도 관계된 것이었기 때문에 수수방관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가문 구성원의 도덕적 순결성의 결핍이 세인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말해진다면, 이는 회피와 묵과로 해결될 수 있는 차원을 넘는다. 도덕적 순결성의 결핍의 문제는 가문의 위신과 관련된 문제이며, 유씨 가문의 사회적 기반의 붕괴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유정경이나 유홍은 이를 그다지 문제 삼지 않는다는 점이다. 유연만이 가문의 구성원의 도덕적 순결성 회복 문제를 고민한다. 그러므로 유연은 정관을 ‘우리집 슈인’이요, ‘불공더턴지슈’요, ‘대인과 소조를 안공호’는 자이며, ‘야야를 히흔 원슈’로 사원(私怨)을 깊이 맺은 사람으로 간주한다. 정관에게 청죄하는 유정경에게 그럴 필요가 없다고 타박을 하며, 오히려 유연은 정관으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만들어 유정경의 명예를 회복시켜준다. 장인과의 관계보다²⁰⁾ 가문의 위신과 명예라는 문제에 긴박되어 있는 장자 유연을 발견할 수 있다.²¹⁾ 한편, 유연의 장자 콤플렉스는 의식적으로 표면화되어 있다. 콤플렉스가 의식을 자극한다는 것은 유정경의 행위에 대해 유연이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㉑ 흑시 몽니의 잇다가 쇼리로쫓츠 놀나 씨다르며 눈을 드러 보니 혼 사람이 상가의 잇서 연갑을 헤쳐 노코 몽중의도 누설홀가 두리며 암실 의셔 홀노 늦출 들디 업서 붓그려흐던 부친의 글을 니여보논지라. 심중 디경호여(15권 386쪽)

위의 인용문 ㉑는 유연에게 보낸 편지를 태자가 보게 되는 부분이다. 유연 스스로 생각함에도 부끄러운 아버지의 행위라 일컫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자 앞에서 아버지를 보호한다. 나아가 가문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에 싸여 있

20) 부형을 모히흔 원슈 막음의 가이 샹실 화우홀 비 아니니 티샤의 몹으시무로 거의 복의 막음을 아르시리니 설설키를 원치 아니호는이다(16권 109쪽) 유연은 정관에게 냉랭하면서도 매몰차게 대한다.

21) 이승복, 앞의 논문 참조. 이승복은 유연의 효우로 말미암아 가문의 유지·번영될 수 있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 원인으로 유연의 절대적인 효우를 지적하였다. 그러나 효우가 서술자에 의해 강조된 것으로, 유연의 행위는 장자 콤플렉스를 지닌 인물로서의 행위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유연은 부친 유정경을 풍도를 어그러뜨리는 강상 죄인에서 일세의 칭송받는 위인으로 만들어 놓는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유가의 가문 구성원들에 대해 시비할 사단을 만들어 놓지 않음으로써 가문의 명예 회복과 위엄과 신망을 성취한다.²²⁾

유연의 장자 콤플렉스는 유효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난다. 유효에 대해 항상 관대하다.

㉞ 문득 드르니 춘슈누의서 7는 소리로 글을 읊프디 지상의 집이 깊다
하나 7는 나뭇 규문을 좃츠미 거릴거시 업도다 덩으의 구든 밍약이
금석 7거늘 월노는 엇지 적승을 뉴연으로 미간고 음영하기를 파호미
고요호여 소리 업시니 성이 듯기를 즈시호여 님의 알오디 말을 아니
코 기리 혼숨 지을 쓰름이러라 이 다른 슝이 안여 흥이 덩시의 아
름다오미 세상의 혼나힌 줄 보고 일점 식기로써 그 금슬을 회짓고즈
호여 가스를 불너 격동호니(15권 40~41쪽)

위의 ㉞ 인용문은 형수인 정소저의 아름다움에 시기심이 일어난 유효이 유연 부부의 금슬을 방해코자 정소저와 자신이 과거에 맹약이 있었다는 가사를 짓는다는 내용이다. 유효이 실제로 그런 마음을 품었는지 진위 여부에 관계없이 유효의 행위는 비윤리적 행위임이 분명하다. 형을 욕보이는 일이고, 패륜적 행동이기 때문에 유연은 유효에게 적대적 감정을 품을 수 있다. 그러나 유연이 유효의 행위에 대한 처치 수위는 현저하게 관대하다.

㉟ 내 널노 더부러 동복 형테로디 죄악이 중호여 모친이 일즉 기세호시
고 흥혀 대인의 무홀호시를 넘으나 못춤 니당을 도라보아 어미 브르
기를 못호니 엇지 세상 슬픈 인성이 아니리오. 이제 다만 바라는 바
는 형테 상의호여 대인을 맞드웁고 각각 처지 이셔 하목호즉 불헿호
중 다헿이어늘 내 이제 흥호는 비 이녕받기니 아지 못게라 우형의
허물이 이실진대 먼디호여 니른즉 또호 골육의 정이어늘 스스로 너의

22) 누상세의 형스반고호미 이렇듯호여 성식을 요동치 아녀 십삼도당의 의논을 막고 십년 침폐호여 세상의 브리엇든 부친으로 호여금 영상을 일워 일세의 칭찬호는 사람이 되게호며 즈기 스스로 시비업셔 편호 곳 디 나오가니 그웁호 효이를 신명이 감동호 디 언정 방인이 아지 못 홀디라 엇지 천고의 명인군지 아니리오(16권 237~238쪽)

흐미 심히고 또 드러니 전일 네 뇨정의 회퇴를 바다 야야의 성총을
 ㄱ리오고 다시 우형을 함흐며 또 축슈당의셔 가스를 음영흐여 아름답
 지 아닌 스적을 니러트 흐니 네 만일 이 마음을 고치지 아닐진디 대
 인이 용샤흐시나 명교의 용납지 못흐리니 내 평성 뜻을 품고 발치 아
 니흐논즈는 기탄흐느니 흐틀며 골육의 허물을 보고 니르지 아니리오
 (15권 42~43쪽)

위의 ㉔인용문에서 유연은 한 숨만 짓고 유홍에게 아름답지 못한 행위라고 말할 뿐이다. 더불어 유홍이 과거에 자신에게 저지른 세 가지 일을 말하는데, 뇨정의 회퇴를 받고 아버지의 판단을 흐리게 한 일, 아버지에게 자신을 모함한 일을 거론한다. 이들 사건은 유홍이 질타를 받을 만한 사건들이다. 그러나 유연은 유홍의 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을 알면서도 유홍에 대해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유홍이 장자로서 갖는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 장자권에 도전하는 반면, 유연은 장자로서의 우월권을 지키려고 유홍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유연과 유홍의 형제 사이는 화목하지 않다.

- ㉔ 형슈 탄 왈 누가 형데 불목흐미 스림의 흰즈흐더니 또흐 연의 효우흐
 미 출신흐 즉 엇지 부즈형데 스이로 좃츠 이 ㄱ튼 환란이 나리오 그
 가운데 연괴 잇도다(15권 245-246쪽)
- ㉔ 순공이 또흐 누가 부즈형데의 불화흐를 디강 드렀느니라 이날 티상
 말과 뉴공의 소의를 보와 불츄이 너겨 니로디(15권 369쪽)
- ㉔ 니각뇌 처음은 생각기를 저의 형데 불목흐미 스림의 흰즈흐니 흥의
 죄를 다스리미 연의 수중의 이실가 흐엿더니 금일 말을 드르니 도로
 혀 참괴하고 모든 사람이 상셔의 뜻 이러흐물 보고 다 옥스를 의논흐
 려 하다가 말을 니지 못흐고 하직고 도라가미(15권 440쪽)

인용문 ㉔는 유연을 죽이려는 유홍의 계획을 강형수가 듣는 부분이다. 사람 사이에 유가 형제가 불목한다는 소문이 이미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㉔ 또한 순공이 유연의 친척 유선을 만나는 부분으로 유선이 유연의 선처를 부탁하는 부분인데, 순공 또한 유가 부자형제의 불화를 익히 알고 있는 상황이다. ㉔는 이각노가 만귀비당이었던 유홍의 처벌을 완화시키고자 분투하는 유연을 보고 한 생각이다. 이각노 또한 유연, 유홍 형제의 불목함을 알고 있다. 인용문 ㉔㉔ ㉔는 각각 강형수, 순공, 이각노의 입장에서 언급된 것으로 유가 형제의 불화와

불목이 세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음을 보여준다.

장자의 입장에서 동생과 경쟁하는 것은 체면에 걸맞지 않다. 형제와의 불화는 장자 노릇을 잘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와 상통한다. 이른바 장자 콤플렉스의 전형적인 양상이다. 이같은 콤플렉스가 의식을 자극하는 것은 개인에게 불쾌한 일이 될 수 있다. 아버지의 종제인 유선에게 조차 ‘스스집 부형데를 다 시비하여 사름의 허물 니르기를 일습’느냐고 대들 정도로 유연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문제였다. 더욱이 유연이 목도하는 현실은, 민란을 방관하고, 만귀비당의 일원으로 활약한 유홍에 의한 멸문지경에 놓인 가문이었다.

그러나 유연은 유홍을 두둔한다. 이는 동생을 포용해야 한다는 유연의 의식 때문이다. 재기 발호한 유홍과 다투는 일은 곧 가문의 명에 실추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유연은 만귀비당의 총수들을 비롯하여 수십 인이 참형당해 더 이상 사형이 집행될 필요가 없다는 점, 유홍은 그들과 깊이 관련되어 있지 않고 단지 친하게 사귀었던 사람이라는 점 등을 들어가며 천자에게 유홍의 면죄를 요구함으로써 유홍의 사형을 면죄 받고 적거충군의 형벌만 받아낸다.

㉔ 공이 당모를 구함미 도시 즈현을 구함미오 텃지 ○사호시몬 허아로 말미아무니 군은이 땅극하나 이후의 난쳐흔 일이 만홀지라 더인이 맛당이 표를 올려 자현의 죄를 일크라 국법의 가이 사치 못허리라 호신 즉 우호로 더의기 성덕이 있고 아리로 시인이 감오함미 곱혀 다시 닷토느니 굴출거시니 원컨더 슈청호소서(16권 235쪽)

그런데 ㉔의 인용문을 보면, 유연은 유정경에게 유홍이 국법에 의거하여 용서치 못할 죄인이므로 죽여야 한다는 표를 올리라고 알려준다. 유연은 유홍의 죄과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홍에 대해 세상시비가 많을 것을 짐작하고 이를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유연의 면밀한 행동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당당흔 당조로 이서 능히 야야 밧들기의 당조의 쇼임을 일흔 비 업’다는 유연의 말처럼 장자로서 끝까지 가문을 수호하고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대한 강박적 의식이 유연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유연은 도덕적 순결성이 결핍된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장자로서 강박관념을 지닌 인물로 형상화 되어 있다. 유연은 유정경이나 유홍의 행위가 부적절하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임을 적확하게 인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유

연은 유씨 가문의 장자로서 가족을 보호하고 가문을 잘 이끌어야 한다는 심리적 동인이 잠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IV. 형상화의 간극과 의미

<유효공선행록>은 서술자 발화가 빈번하게 노출되는 작품이다. 서술자 발화는 고전소설에서 흔히 나타나는 기술 양상으로 등장 인물에 대한 평가나 사건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룬다. 서술자의 발화는 일반적으로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에 토대하는 기술보다는 서술자의 주관에 용해된 감정적 기술이 많다. 그러므로 향유자들은 서술자의 발화에 의해 자유로운 상상과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 서술자의 발화가 빈번할수록 서술자평에 견인되기에 쉽다.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서술자의 발화는 등장 인물에 대해 일정한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유정경이나 유홍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일관하고 있는 반면, 유연에 대해서는 관인·효우한 군자적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평가는 인물 간의 갈등 발생 이전부터 고정되어 있다. 특히 유연이 보이는 태도가 전일하게 효우한 행동이 아님에도 서술자의 발화를 통해 유연이 효우한 인물임을 강조하고 있다. 유연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는 효우한 인물로서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효우한 인물로 판단을 유보할 여지를 소거시켜 놓는다. 결국 유연이 효우한 인물로 보이게 된 이유는 효우하다 라는 서술자의 발화와 유정경과 유홍에 비견하여 유연에 대한 긍정적인 서술자의 시각과 언술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유효공>의 서술자는 권위적이며, 권위적인 언술로서 유연이라는 인물을 효우한 인물로 파악되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 <유효공선행록> 작품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유연의 행위를 통한 유연의 실상은 다르다. 작품 안에서 유연의 모습은 자신보다는 가족 또는 가문 기대를 우선시 한다. 유연은 장자로서 가권을 수호하고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강박적인 의식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곧 유연은 장자 콤플렉스를 지닌 인물이다. 유씨 가문 구성원들의 도덕적 순결성의 결핍이 그

것이다. 아버지 유정경의 문제는 살해, 음증, 공직자 윤리의 해이까지 닿아있다. 동생 유흥 또한 음증, 뇌물 수수, 반역에 가담되어 있다. 유연은 가문 구성원의 도덕적 순결성의 결핍으로부터 그것의 해결을 지향하고 있다. 이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유연은 가문의 장자로서 고뇌와 번민에 휩싸이는 인물인 것이다. 따라서 유연은 끝까지 가문의 명예와 위상에 대해 고민하고 문제적 상황을 해결하려 한다. 요컨대, <유효공선행록>에서 일련의 사건과 행위를 중심으로 볼 때, 유연은 유씨 가문을 주축에 둔 장자 콤플렉스를 소유한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유연의 형상은 권위적인 서술자의 발화에 의해 의도적으로 효유한 인물로 형상화 되어 있다. 한편 사건과 행위로 그려지는 유연의 형상화의 실제적 모습은 장자콤플렉스를 보이는 인물이다. 말하기와 보여주기의 기법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유효공선행록> 이 인물 형상화에 있어 파탄을 일으키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연의 형상화에 있어 실패한 것이 결코 아니다. 유연에 대한 형상화가 두 양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두 형상화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유연에 대한 이 양가적 평가에 대한 담겨진 함의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두 형상의 관계를 해명할 때 규명된다. 먼저 유연이 보이는 장자 콤플렉스는 유흥과의 대결과 투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장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효우가 필요했다. 유연의 잠재된 의식 속에 있는 강박관념은 유연으로 하여금 장자로서의 노릇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고충을 하게 했다. 인물의 내적 고민과 갈등이 외적으로 표출이 효우인 것이다. 다만 인물의 형상화에 의해서가 아닌 서술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장남의 역할과 책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산에서 비롯된다 하겠다. 17세기 이후 종법의 확립과 함께 가문의 창달과 견고화가 중시되었다. 가문의 창달과 견고화를 이루기 위해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가문의 결함을 은폐하거나 처리하는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데 가문 구성원의 일원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무는 장자에게 맡겨져 있다. 유흥이나 유정경이 가문의 결함에 대해 무관심한 반면, 유연에게는 가문의 결함을 해결하는 것이 삶의 목적적 가치

로 작용한 점에서 알 수 있다. 다만 장자로 하여금 심리적 동기를 유발시키고 이를 외적으로 표출하는데까지 이르지 못한 것이다. 효우라는 것이 유연이라는 인물의 사건이나 행위에서 묘사되기보다 권위적인 서술자의 반복적인 발화에 의해 견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파악된다. 반복적 발화를 통한 서술자의 의도성, 즉 작가의 의도성이 가미된 것이다. 이는 <유효공선행록>이 가문 창달을 목적으로 하던 사회적 분위기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소설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²³⁾

V. 맺는말

<유효공선행록>에서 보이는 유연 형상화의 두 양상을 살펴보았다. <유효공선행록>의 중심 인물인 유연이 어떠한 인물인가에 대한 해명은 유연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유효공선행록>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유연 형상화의 양상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첫째, 권위적인 서술자의 발화에 의해 유연은 효우한 인물로 말해지고 있다. 이는 서술자가 반복적으로 언술함으로써 서술자의 의도성이 다분히 감지된다. 둘째, 행위와 사건을 통해 드러난 유연의 형상은 장자 콤플렉스를 지닌 인물이다. 의도와 실제 사이에서 간극이 발생한 것이다. 그렇다면하여 <유효공선행록>을 인물 형상화에 있어 실패한 작품이라고 결코 평가할 수 없다. 유연 형상화에 나타난 간극은 가문의 창달과 견고화 이전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문의 결함을 은닉하거나 해결하려는 것이 장자에게 삶의 목적적 가치가 되던 시대적 산물이 바로 <유효공선행록>인 것이다. 이를 유연의 형상화의 두 양상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주제어 : 서술자 발화, 효우, 실제적 형상화, 장자콤플렉스, 형상화의 차이

23) <유효공선행록>과 연작 관계에 있는 <유씨삼대록>이 가문의 창달과 견고화를 표방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같은 평가는 유효하다.

참고문헌

□ 자료

- <유효공선행록> 김기동 편, 『필사본고소설전집』 15·16, 아세아문화사, 1980.
<유효공선행록> 『나손본 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41~43, 경인문화사, 1981.
<유효공선행록> 『박순호본 한글 필사본 고소설자료 총서』 82,

□ 논저

- 김기동, 『한국고전소설연구』, 교학사, 1983, 648-653쪽.
김영동, 「<유효공선행록>연구」, 『한국문학연구』 8, 동국대, 1985.6, 113-138쪽
임치균, 「<유효공선행록> 연구」, 『관악어문연구』 14, 서울대 국문과, 1989.12, 209-229쪽.
송성욱, 「고전소설에 나타난 부의 양상과 그 세계관 -<유효공 선행록> <뉴씨 삼대록>을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15,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90.12, 151-171쪽.
이승복,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효우의 의미와 작가의식」, 『선정어문』 19, 서울대 국어교육과, 1991.12, 162-184쪽.
장효현, 「장편가문소설의 성립과 존재 양태」, 『정신문화연구』 4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9, 21-39쪽.
최길용, 「<유효공선행록> 연작 연구」, 『국어국문학』 107, 국어국문학회, 1992.5, 131-160쪽.
박일용, 「<유효공선행록>의 형상화 방식과 작가 의식 재론」, 『관악어문연구』 제20집, 1995.12, 151-176쪽.
양혜란,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전통적 가족윤리의 제문제」, 『고소설연구』 4, 한국고소설학회, 1998, 253-292쪽.
이수봉 외, 『한국가문소설연구 논총』 II·III, 경인문화사, 1999, 1-682쪽.
조희용, 『고전소설이본목록』, 집문당, 1999, 1-907쪽.
전성운,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君子와 才子の 다툼과 그 의미」, 『조선 후

기 장편국문소설의 조망』, 보고서, 2002, 253-285쪽.

김성철, 「<유효공선행록>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2002, 1-65쪽.

<Abstract>

Two Features of the Formation of
Yu-Youn(유연) in
<Yu-Hyo-Gong-Sun-Hang-Lok(유효공선행록)>

Choi, Yun-Hi

In this essay, I focused on <Yu-Hyo-Gong-Sun-Hang-Lok>. Especially, I examined two features of the formation of a hero, Yu-Youn. First, there are frequent narrator descriptions. They repeatedly estimate the hero as a promising character. Judging from this, we can assent to the acting of the prime mover; show his parents every attention(filial piety) and has brotherliness. But the hero, Yu-Youn, isn't entirely positive character. Second, the hero is described as a person who has an eldest son complex. He doubts his father(Yu Juong-Kyeng유정경) and his brother(YU Hong유홍), because they are restricted with hypocrisy of patriarchy. In short, we can confirm that superficially the authoritative narrator seems to describe the hero as a promising man, but substantially the hero is a protector of patriarchal order.

Key Words : narrator descriptions, filial piety, brotherliness, actual character, eldest son complex. difference of character